

## ‘백척간두’ 국가 위기 극복 한마음

2025년 시무예배 및 신년하례식,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다짐

### 73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



2025년 시무예배를 드린 후 신년하례식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의 교단 총회 2025년 시무 예배 및 신년하례식 및 73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가 지난 1월 6일(월) 오전 11시 은혜와진리교회 안양 성전에서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를 비롯 정책 위원 및 실행위원 각 국장, 각 위원장, 각 기관장 등 팔십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날 시무예배는 교단 사무국장 윤기석 목사의 사회, 교단 부총회장 이인호 목사의 기도, 재무 최정식 목사의 성경봉독, 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인호 목사는 새로운 헌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마지막 때 바른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시대와 사회를 밟히는 역할을 감당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다.

총회장 김영준 목사는 요 1:29 말씀을 본문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새로운 한 해 목표를 바로 정하고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전하고 “어린 양 예수의 피는 죽음의 재

앙을 뛰어 넘으며 바로를 항복케 했으며 노예생활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며 희망과 소망을 주시며 성령으로 새레를 부어주신다”고 강조한 뒤 승리하는 한 해 복 받는 한 해가 될 것을 당부했다.

계속해서 특별기도로 ‘교회와 나리를 위해’ 교단 총무 오세준 목사, 성령충만한 사역을 위하여 교단 서기 장동근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예배는 교단 회계 백영자 목사의 현금기도, 사회자의 광고, 직전 총회장 김병국 목사의 축도로

순서를 모두 마쳤다. 곧바로 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인도로 이어진 신년하례식에서는 조용목 목사를 비롯한 정책위원들이 제자, 후배들을 격려하고 밝게 새해인사를 나누며 교단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협신해 준 회원들 서로를 축복하고, 참석자들은 선후배 동역자들에게 뜨거운 박수로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새해 덕담을 주고받았다.

오전 후 오후 1시 제73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가 시작되어 최근 진행 중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앞으로 진행될 일들에 대해 논의를 갖고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국가적 위기에 처한 시국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경청했다.

총회장 김영준 목사 주재로 진행된 실행위원회는 서기 장동근 목사의 회원집명, 개회선언, 전 회의록 낭독, 총무보고가 이어졌다.

총무 오세준 목사의 총무보고, 재무 최정식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백영자 목사의 지출보고가 있었으며 교단별전기금 납부현황 보고, 교회기입 청원, 교역자기입 청원, 전도사임명 청원, 교역자전출입 청원, 교회전출입 청원, 교회명칭변경 보고, 교회복귀 청원, 교역자 복귀 청원 등 각종 결의사항 등이 처리되었다. 기타사항으로 2025년도 목사고시 진행상황 등이 보고되었다.

이날 실행위원회들은 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인도로 국가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백척간두, 풍전등화와 같은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



73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 임원배석



###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김영준 목사

예하성 총회장

길브리큰소망교회 담임

하나님이 주신 감격스러운 새해를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새해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와 친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원 여러분의 섭기시는 교회와 사역과

기정위에 성령의 기쁨부으심

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후에 노아에게 약속하시기

를 장 8:22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울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 하리라”라고 약속하신 대로 2025년에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븝은 태양이 솟아오르게 하셨고 추위와 더위와 사시사철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넘아있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총회원 여러분, 나라가 혼란스럽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측불허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손길을 움직이는 분이 우리 하나님께서니 이럴 때 우리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차가 없어도 2km, 4km 거리를 새벽기 도회에 침식하기 위해 걸어서도 나갔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열심이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2~3대 자가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같이 새벽기도회에 안 나옵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총회원 목사님들께서 본질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랑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시고 우리나라를 구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금년 한 해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에 소속된 총회원 교회마다 평안하고 많은 영호가 구원되어 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총회장 김영준 목사

(길브리큰소망교회 담임)



### 고난과 번영과 질병을 이렇게 대처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약 5:13,14)

고난과 번영과 질병이 세 가지는 누구나 일생을 통하여 겪게 되는 일이므로 이런 일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누구나 번영은 유익하고 고난과 질병은 해롭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대처할 것인가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과 결과가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 대처 방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지혜와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난당한 사람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나게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고난을 당하면 자신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듯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집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여주십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기적을 배풀어 주십니다. 고난이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살피하여 주십니다.

둘째, 즐거워하는 사람은 친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은 일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람, 형통하게 되거나 번영하게 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형통하면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자제와 힘을 자랑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번영하면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 재미가 있어서 소양생활이 해이하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데가 많고 곳이 많이집니다. 그로 인하여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되고 주의 일에 힘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신 건강과 재능과 명성과 권세와 물질을 육신의 일만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친종하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신앙생활에 더욱 힘쓰라는 뜻입니다. 친종은 예배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힘쓰는 교

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셋째,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침 받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질병의 위험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와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 기운에는 우리를 질병과 그로 인한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신우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으므로 논란할 여지없이 절대 복종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나오는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예외 없이 다 낫자는 아니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치유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한 사람은 어떤 결과이든 하나님의 결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면 여러 종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건강 유지와 질병 치유를 위해 신우의 기도와 함께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해야 할 것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절제하는 생활, 청결한 생활에 헐벗도록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하였습니다.

고난당하면 주님께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형통하여 즐거울 때는 주님께 더욱 많이 드리십시오. 병들면 하나님께 병 고쳐주시기를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당면하는 고난과 번영과 질병이 하나님의 선하신과 권능과 신실함에 대한 체험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더욱 깊고 풍성한 교통을 갖게 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 “백척간두에 선 국난극복 위해 기도하자!”

#### 2025년도 첫 교단 정책위원회

교단 정책위원회(위원장 조용목 목사)는 지난 1월 6일(월) 오후 3시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에서 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모임에 앞서 드린 예배는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정책위원장 김상용 목사의 대표기도,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창 1:29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때에 깨어 있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가 백척간두의 어려

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한다고 하셨으므로 한국교회가 국가의 어려운 상황을 해쳐 나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므로 힘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을 강조했다.

예배 후 곧바로 이어진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은혜와진리교회 조명제 목사가 교단 학법에 의거 정책위원회로 추대되었다.



#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는 모두가 되길

사고 수습에 최우선…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애도



무안공항 항공기의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서영 목사 수많은 생명이 희생된 큰 참사라는 점이 우리를 더욱 아파게 합니다.

어떤 말이 위로도 되지 않을 만큼 참담한 상황이지만 이픔을 함께 지고 슬픔에 함께 우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부와 당국은 사고 수습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해주시고, 가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조속히 수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과정을 통해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29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 사랑나눔행사 갖고 생필품 500박스 이웃에 전달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어려운 이웃과 탈북민선교회에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권순웅 목사, 회장총)는 12월 17일(화) '사랑나눔 행사'를 갖고 어려운 이웃과 탈북민선교회(금호 목사)에 '사랑나눔 성탄박스' 500개를 전달했다.



# AI 기반 남북한 번역 모델개발

국제학계 주목… 한동대 KISTI 공동연구팀

IT 기술을 통해 남북한 언어장벽을 허물고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한동대학교 한동인공지능연구실(HAIL, 지도교수 흥재길)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공동연구팀이 개발한 AI 기반 남북한 번역 모델이 국제 학계의 주목을 받으며, IT 기술을 통한 통일 준비의 혁신적 가능성을 보여줬다.

한동대-KISTI 공동연구팀은 지난해 12월 7-9일 일본 도쿄외국어대학교(TUTS)에서 열린 제38회 태평양 아시아 언어, 정보 및 계산 학술대회(PACLIC 2024)에서 'Bridging the Linguistic Divide: Developing a North-South Korean Parallel Corpus for Machine Translation'을 주제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트랜스포머(Transformer) 기반 번역 모델을 활용해 남북한 언어 번역의 획기적인 성능 향상을 이뤄냈다.

연구의 핵심은 KISTI NKTech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의 문헌을 바탕으로 구축한 최

초 남북한 병렬 문장상 데이터셋이다. KISTI의 최현규 박사는 '남북한 문학적 단절의 시발점이 되는 언어 이질화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 취약계층 영불균형 해소 '참 외롭지 않아'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자활사업 참여주민에게 문경사과 2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시장 심정은)은 지난해 12월 11일(수) 서울 전역 자활사업 참여주민들의 견강한 격려나기를 위해 문경부사사과 2톤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참외롭지 않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번 지원을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취약계층의 영양 섭취 불균형이 건강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제철 과일 지원을 통해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돋우고 사회적 온기를 전하고자 기획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정포커스' 연구보고서(2021.8)에 따르면, 중위소득 30% 미만 가구의 하루 평균 과일 섭취량은 134g으로, 중위소득 50% 이상 가구의 180.7g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식품군에 비해 매우 큰 격차를 보이는 수치다.

이번 사업은 재단이 최근 진행한 취약계

층 어르신 대상 친환경 쟁기, 김봉사과 지원에 이은 후속 프로젝트다. 한 명의 친구가 있을 때 살기는 훨씬 더 쉬워집니다'라는 재단의 슬

로건처럼, 취약계층 청년 및 중장년층에게 친구와 같은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지역자활센터 관계자는 "이번 프로

젝트를 통해 취약계층이 영양가 높은 제철

과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수혜자들이 마음의 온기까지 함께 전달받았던 깊은 감사를 표현했다"라고 전했다.

재단은 이번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

해 문경의 시과농장 '애플스타'와 협력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철 과일 지원과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성탄절 축하예배 및 시상식

(사)한국노숙자총연합회, 새해 하나님의 복을 기원

(사)한국노숙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주태, 총재 김효일 이시장 원종분)이란 한노총이 이기 예수 오신 성탄절을 노숙인들과 함께 지난해 12월 24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성탄절 축하예배를 드렸다.

이 자리에서는 그간 노숙인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온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대표회장 이주태 장로는 "오늘 노숙자와 함께하는 성탄절 축하예배 및 시상식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날"이라며 "우리 사회의 소외된 그룹이 되어 병행하고 있는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밭이 되어 섭기고 있다.

한노총 총재 김효일 목사는 대회사를 통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실천해 옳기고자 함께하고 있다"고 새해 하나님께 축복을 기원했다.

시상식에서는 송용필 목사(기독교총연합회장)와 나영수 목사(나눔과기쁨 이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최재형 전 국회의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정분현 종로구 청장이 노숙인들이 주는 특별한 상을 수상했다.

이 자리에는 국제미야코경찰대학교 총장 양정부 목사와 한국기부재단 이시장 박장옥 목사, 원종분 목사 등이 함께해 격려와 축사를 전했다.

시상식에 앞서 드려진 성탄절 축하예배는 김미리 목사(시무총장)의 사회로 윤순조 목사(총무)의 대표기도, 짐양근 변장의 특별

# 제21회 미래목회포럼 정기총회 개최

임원회 대신 위원회 중심으로 조직 개편

(사)미래목회포럼은 제21회 정기총회 및 대표, 이시장 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12월 12일(목) 오후 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2층 조에홀에서 열렸다.

미래목회포럼은 이날 새로운 대표로 새종 양교회 황덕영 목사를 선임하고 기존의 임원회 대신 위원회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특히 AI인공지능위원회와 사회적공공성강화

위원회, 통일위원회를 신설해 실질적인 사역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시대 조류에 발맞춰 나가기로 했다.

미래목회포럼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인공지능을 실제 목회 현장에 활용하는 방안을 전문가에게 연구프로젝트로 의뢰해 내년 포럼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래목회포럼은 설 명절과 추석을 맞아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고향교회 방문 긴증 수기 모집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이날총회에서는 고향교회 방문 수기 모집에 당선된 서광교회 박무형 목사의 시상식도 열렸다.



# 한기총 총무협, 제24회 정총

정관개정 및 대표회장 선출건 심의처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지난해 12월 17일(화) 오전 11시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제2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서승원 목사를 회장에 선출했다.

예배는 부회장 이종복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이영구 목사의 기도, 회계 한정환 장로의 성경봉독, 한기총 사무총장 김정한 목사의 설교, 총무 노문호 목사의 광고, 증경회장 김경만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정기총회 회부처리는 회장 서승원 목사의 인사 후 서기 원종경 목사가 회원집명한 결과 성원이 됨으로 개회가 됐다. 경과 및 사업보고, 회계보고, 감사보고는 배포된 유인물을 받기로 하는 한편 한기총에서 요청한 정관개정의 건과 대표회장 선출의 건

을 심의 처리했으며, 그밖에 나머지 안건은 위원회에 위임해 처리하기로 했다.

△회장 서승원 목사 △부회장 이영구 · 고광원 · 이종복 · 맹상복 · 박동희 목사 △서기 원종경 목사 △부서기 송금섭 목사 △

회의록서기 이태우 목사 △부회의록서기 이의현 목사 △회계 한정환 장로 △부회계 김인태 선교사 △총무 노문호 목사 △부총무 김종표 목사 △감사 최승식 · 이충오 목사



# 희망친구 기아대책, 여성가장 자립지원 '원더마켓'

여성 가장에게 '따뜻한 겨울' 선물하는 '놀라운 시장' 열려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최창남)은 기아대책 홍보 대사들과 함께 여성 가장의 자립 지원을 위한 2024 원더마켓을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12월 6일(금) 서울 강서구 등촌동

센타스웨어 '리리라운지' 및 행복한나눔가게 문래점, 웃집, 서울대입구역점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번 행사는 배우 김혜은, 뮤지컬 배우 흥지민, 아니운서 이선영 등 기아대책의 홍보대사들이 참여했다. 함께 참여한 배우 김영선, 소프리노 임선희, 아니운서

이정민 등 각 분야 정상의 셀럽들도 유명 브랜드 의류 및 액세서리 등 다양한 상품 1500점 가격을 기부하며 여성 가장 자립 지원에 적극 나섰다.

이외에도 여성 가장 사업가로서 기아대책을 통해 재봉기술을 익히, 현재 행복한나눔 매장에 직접 물품을 납부하고 있는 홍혜경 흑테리어 대표도 함께하며 자리를 빛냈다.

이번 마켓에서는 다양한 물품 판매와 함께 봉문객이 즐기며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기아대책 셀럽들이 개인 기증한 상품과 기업 협찬 물품을 돌리고 구매할 수 있는 부스가 마련됐으며 고기의 주얼리 제품을 경매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특별 경매' 코너가 운영됐다.





# 좌·우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전진

## 교단 부흥사회 송년회 모임과 교회정관에 관한 특강

교단 부흥사회(회장 김건수 목사)는 지난 해 12월 23일(월)-24일(화) 1박2일 동안 제주 한마음교회(담임 김건수 목사)에서 송년회 모임과 교회정관에 관한 특강의 시간을 가졌다.



기회예배에서 회장 김건수 목사는 삼상 6:10~15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이 시대에 부흥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신고 벤세메스

로 올라가는 어미 암소처럼 새끼 송아지를 떠나놓고 가는 이들을 끌끌이 김내하며 죄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묵묵히 현신하며 나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배 후 곤비로 2부 순서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열고 지금의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실을 걱정하며 대한민국과 대통령



을 위해서 기도했고, 각종 반성개선적인 악법들이 제정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

3부 교회정관 특강에서는 안병찬 목사(순복음침아름다운교회)가 강사로 교회정관의 중요성과 법적인 보장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

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제주시 금암리에 있는 새미은총의동산으로 이동해서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에서 부활까지의 여정을 표현해주는 다양한 조형물을 감상하며 복음서에 나오는 당시의 성경적인 의미를 되새기는 은혜로운 시간도 가졌다.

## 오직 사명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연단극복

### 순복음광주신학교 제12회 졸업식

순복음광주신학교(회장 최정식 목사) 제12회 졸업식이 지난해 12월 9일(월) 오전 11시 목양제일교회에서 지방회 임원과 교수,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이날 예배는 조길수 교수의 사회로 시작

되어 민경술 교수의 기도, 재학생들의 특송에 이어 본 교단 회계 녹동순복음교회 담임 백영자 목사가 마 16:21-28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복회초기의 녹록치 않았던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일’

을 생각하며 금식하며 때로는 밤을 새워기도한 것이었고 한편으로는 다양한 독회 자료를 절저히 준비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지난날을 담담히 소회했다.

이어 2부 순서에서 교부처장의 학교연혁 보고를 하고, 학장 최정식 박사가 졸업생 김재현 임수리에게 졸업장을 수여하고 김재현에게 총회장상과 공로상을, 임수리에게 학장상을 수여한 후 훈시를 통해 “어렵고 힘든

여간에도 오직 사명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연단과 훈련에 끝까지 원주한 두 제자들이 자랑스럽다면서 광주신학교 졸업생이라는 정체성을 알지 말아야 하며 시대적으로 교회와 목회자들의 역할이 엄중한 때라면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어떠한 경우에도 진리의 복음만을 전파하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찬식 교수가 권면하고 지방회장



김영호 목사와 동문회장 권순철 목사가 축사한 후, 재학생 대표 김진자 목사가 송사를 졸업생 대표 김재현이 답사한 후, 본교 전임이사장 주덕영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졸업생들이 준비한 풍성한 애찬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교제의 시간을 통해 졸업생을 축복하고 모든 참석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 순복음아멘교회 장로장립 및 임직감사예배

###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안재봉 목사) 순복음아멘교회(담임 임형순 목사)는 지난해 12월 28일(일) 오전 11시 동교회 대성전에서 교회장립 20주년 징로장립 및 임직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임직감사예배는 임형순 목사(순복음아멘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경기지방회 총무 조광현 목사의 대표기도, 서기 윤진철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안재봉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안 목사는 요 11:55-57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 서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만나를 주시며,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는 멀리신다.” 그렇

기에 이제는 직분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변화된 삶이 필요하다”라고 전하며 모든 임직자들을

축복했다. 이어서 2부 제직임명식을 통해 김이경, 신동현 안수집사가 시무장로의 직분을 받고, 장성석 장로가 협동장로에서 시무장로가 되었으며, 김기락 장로가 협동장로의 직분을 받았다. 이어서 김영호 집사가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았고 김미순, 김은숙, 유덕기, 이성은, 이수미, 전은주, 최형심 집사가 원사의 직분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이수웅 시무장로가 은퇴하여 원로장로의 직분을 받게 되었다. 제직임명식을 위해 김종연 목사(의정부은혜교회)의 기도로 직분자들을 축복했다.

이어서 3부 축하의 시간을 통해 정광호 목사(동문순복음교회)의 권면, 최은규 목사(순복음선한목자교회)와 김영호 목사(순복음행복한교회)의 축사가 이어졌고, 임직자와 교회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쁘고 행복한 임직감사예배와 장로 장립 및 제직임명식이 되었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임용재 목사(산정리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설교를 전했다.

김 목사는 설교를 통해 “더 좋은 시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루미감옥에 있던 비율보다 기쁨을 상실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비율의 외침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다”라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성도는 거듭난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이다.

### 예수이룸교회에서 월례회 개최

###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김성규 목사)는 지난 2024년 12월 20일(목) 오전 11시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1025번길 29-301 위치한 예수이룸교회(담임 김진원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나리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진원 목사(예수이룸교회)는 빌 1:1-2 말씀을 본문으로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김 목사는 설교를 통해 “더 좋은 시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루미감옥에 있던 비율보다 기쁨을 상신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비율의 외침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다”라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성도는 거듭난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이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목회자인 우리는 맑이 안되는 환경, 처지가 되어도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전하고 “주님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강조했다. 예배 후 진행된 월례회는 지방회장 김성규 목사 주재로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구독문의 우편발송요금** 02)2677-9936  
**광고문의** 02)2677-9936 FAX 0504)027-0897  
**웹하드 :** ID mok677 PW 5277  
**E-mail :** mok2677@naver.com / mok2677@kakao.com

### 오피니언 칼럼

// 안승오 영남신대 선교신학 교수

## 기독교인이 친중 친북 좌파 정권을 지지할 수 없는 이유

기독교인이라 해도 정치적 성향은 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 친중 친북 좌파 정권을 지지하면 적어도 다음 사항들을 억압하는 나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거칠고 혐오하고 박해하는 사상이다. 기독교는 공산주의 존립에 가장 큰 위협이 되기에,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어떻게든 제거하려 하고 그런 이유에서 지금도 기독교를

심 거점들에 침투해, 연성으로 공산회를 추진하는 것이다. 평등·인권·자유 등 그럴듯한 가치를 내세우면서 추진되기에 일반인들은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속아 넘어가기 쉽다.

그런데 네오마시즘의 가장 심각한 전략 중 하나가 바로 동성애 등으로 나타나는 성 혐오이다. 성을 혼란스럽게 하여 ①성적으로 타락하여 정상적인 삶을 파괴하고 ②남녀로 구성된 정상적인 가정을 파괴하며 ③동성애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에이즈와 변심금 등으로 건강이 무너지게 하고 ④결국 모든 사회가 혼란에 빠져 무너지게 한다.

이런 일로 인해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돼 결국 국가에 의존하게 되며, 국가가 이것을 빌미로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전체주의 공산 독재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친중 친북 좌파 정권은 네오마시즘의 한 전략인 성 혐오를 저지하는 정권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같은 동

성 혐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가장 마지막 행동이다. 인간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동들을 해 왔지만, 인간이 결코 바

꿀 수 없는 것은 성(性)이었다. 하지만 동성애라는 성 혐오는 통해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반항했고, 이것을 법적으로 합법화하는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좌파 교회 안에서 용인될 수밖에 없게 되므로 교회는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

실제로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서구 교회들이 이행폐회되는 데는 이런 성 혐오 합법화도 한 몫을 했다. 그런데 한국에서 동성애 합법화를 끊임없이 시도하는 세력은 대부분 친중 친북 좌파 정치인들이다. 따라서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정권을 지지하는 것은 곧 동성애 합법화와 교회 흥행화로 이어질 수 있다.

친중 친북 좌파 정권은 북한과 중국의 대한민국 침탈에 부역하는 정권

대한민국에 북한과 연관성을 가지고 친북 또는 종북 행위를 하는 자가 많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친중 친북 세력뿐 아니라 중국을 유리하게 하는 친중 종중 세력도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은 서방 세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무

골 전쟁인 ‘초한전(超韓戰, Unrestricted Warfare)’을 벌여왔고,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국 역시 이 러한 초한전의 전쟁터가 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 땅에 ‘동방明珠(東方明珠)’이라는 식당을 가장한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서’를 만들고, 중국 공산당 조직인 ‘공자학원(孔子學院)’을 만들어 친중 지식인을 양성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침탈에 도움을 줄 정치인·언론인·법조인들에게 엄청난 물량 공세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한국 침탈을 실행해 가는 것이다. 중국이나 북한 같은 공산국가에서는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다. 일제시대에 친일파가 매국노 역할을 했다면, 오늘은 친중파가 정말 심각한 매국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 좌파 전영에 이런 친중 인사가 많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 침탈에 도움을 줄 정치인·언론인·법조인들에게 엄청난 물량 공세와

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큰틀에서 보면, 좌와 우의 대립이라 할 수 있다. 즉 친중 친북 성향의 좌파 전영과 자유 우파 사이의 전투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것은 곧 좌파의 승리라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선을 치른다면 99.9% 좌파 전영에서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공정하지 못한 각종 언론에 선동된 국민들은 좌파 후보를 향해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좌파 후보를 선택한 국민들은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가장 적절한 선택일까? 큰틀에서 본다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좌파를 선택하는 것은 곧 북에 의한 공작이나 공산화 가능성을 높이거나, 중국에 의한 침탈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일 수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참으로 불행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기독교인 입장에서 좌파를 선택하는 것은 곧 기독교인의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공산주의와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악의 세력인 동성애를 간접적으로 선택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판세 전체를 보는 기독인의 생생하고 지혜로운 선택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 시점이다. CT©

사실 정치 지도자 입장에서만 보면 중국이나 북한 같은 전제주의 독재 국가가 민주 사회 지도자보다 훨씬 수월하고 좋을 것이기 때문에, 유유상종은 기속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

것은 곧 한국이 자연스럽게 중국이나 북한처럼 전제주의 사회로 국민의 자유와 발전을

억압하는 나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 대통령 탄핵 시국 수습을 위한 긴급 제언

## - 자유대한민국 원로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가운데, 국회(민주당)가 현재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으로 1월 4일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2/3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탄핵소추 요건이 취소된 것으로서,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자체가 윤전원무효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나머지 1/3에 해당하는 계약형 선도 등과 관련한 부분은 이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본령이 아닌 절차 등의 문제로

서 법률적 딜레마의 여지가 남아 있을 뿐이다.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의 핵심 부분이 취소되었다면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재의결 하든가, 아니면 국민투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고 법률적으로도 합당할 것이다.

작금의 우리의 상황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가 붕괴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자유대한민국 원로회의'는 다음 6개 사항을 전제 대한민국 국민과 22대 국회,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및 공수처 등 관계 부처에 긴급 제안하는 바이다.

①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시안이 무효화된 만큼, 현재는 지금 즉시 탄핵안 심리를 중단하고 이를 기각하라!

② 공수처와 검·경은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위헌 적 불법 내란죄 수사를 중단하라!

③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즉시 (대한민국 헌법 수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대한민국 헌법 수호와 헌정의 지속을 위해 대통령직 업무에 복귀하라!

④ 검·경과 군은 공수처의 지시를 무작정 따를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반란법'이 될 수 있는 만큼 결코 경거 망동 하지 말라! 국군은 오직 국가 안보에 충실히하고 경찰은 국민 안전 업무에 매진하라!

⑤ 모든 내외신 언론들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존중하고 오직 사실에 입각하여 충실히 보도해줄 것을 당부한다.

⑥ 미국 일본 유럽 등 전 국제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각계각층 시민사회는 침착하고 성숙한 자유민주 시민으로서 법과 질서를 준수해줄 것을 당부한다.

감사합니다.

2025. 1. 5.

자유대한민국 원로회의

이동복 15대 국회의원,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이석복 예비역 육군 소장, 염준재 전 국정원 차장,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2025년 부흥사회

## 2025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 문의 |

회장 김건수 목사 HP : 010-3698-5764  
상임총무 조은혜 목사 HP : 010-5649-5121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 2025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 설립 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기반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 학점을 취득함으로 출입하는 제도입니다.

### 1. 지원자격

| 학과           | 수업연한              | 지원자격   |
|--------------|-------------------|--|
| 신학과<br>(신입생) | 3년 6학기<br>(140학점) |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br>2. 소명의식이 있는 자<br>3. 신인경력 5년 이상인 자                               |
| 신학과<br>(편입생) | 2년 4학기            |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br>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br>3.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

###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인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영란편 사진 20(3개월 이내 촬영)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http://gd.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5학년도

##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신·편입생 모집

###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인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출입하여야 한다.

###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물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 원 훈

- 말씀중이며, 성령충만.
- 목회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31)944-518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 59-3)  
사이버 목회 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http://gd.ucts.org,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 학과                                       | 과정  | 수업연한 | 지원자격   |
|--|-----|------|--|
| 목회학 석사<br>(M/Mas-<br>ter of<br>Ministry) | 3학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li> <li>•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li> <li>•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li> <li>•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익사 허락을 받은 자</li> </ul> |

### 2. 전형 방법 :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서 접수 : 수시 ④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 4. 전형료

① 전형료 : 30,000원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증(본인) 1부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출신인사실관계) 1부

###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출입자는 출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원)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교단 신학교 졸업자)로써 부여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출마일 홈페이지로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다.
- 입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 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된다.
- 기타 세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http://gd.ucts.org 에서 출마 및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 거대 야당은 의회독재를 멈추라

공동의 선을 위한 협치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거대 야당에게 협치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인가? 모든 건을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탄핵'의 압박과 강제의 싸움의 모양으로 끌어가고 있으니 말이다.

대통령 탄핵 시대는 비상계엄으로 인해 나온 결과라 하지만, 지금의 야당의 모습을 보면, 비상계엄을 선언하지 않았아도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거나,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에 거슬리는 자들은 모두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켜 국정 마비를 가져오게 했겠다는 생각을 자울 수 없다.

심지어 탄핵과 예산, 특검의 칼로 모든 것을 도려내고 하수이비 대통령을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입법부를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제의 요구권'인데, 그것을 탄핵으로 무력화시키다면 그야말로 의회 독재요, 견제 없는 절대권력을 휘두르려는 행태가 아닌가? 군대가 아닐 뿐 비상계엄과 전혀 다른바 없는 행위이다. 실제 군인처럼 종만 들지 않은 것이지, 앞을 기로마는 모든 것을 탄핵이라는 총으로 위협하고 쓸어버리는 꼴인 것이다.

거대 야당은 의회독재를 멈추고, 공동의 선을 위한 협치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금까지 확인된 헌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추가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국회가 발의하지만, 그 결정은 국민투표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대한민국이 대화와 협의의 정치가 회복되는 나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균형을 이루며 조화롭게 발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선동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가 아니라 진짜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2024년 12월 26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 국회가 삼권분립의 원칙 훼손

언론이 미확정 '내란죄' 프레임 그대로 옮기며 국민을 오도

세이브코리아와 수기총을 비롯한 1,200여 시민단체들이 최근 대통령 탄핵 및 내란죄 논란과 관련해 국회와 언론, 공수처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월 3일(금) 오후 1시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언론이 확정되지 않은 '내란죄'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쓰면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반헌법적 폭거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는 '국회 독재'를 종료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충실히 하라"며 "작금의 국회는 범법자와 무지한 자의 소굴이며, '권력욕'이라는 거미줄에 사로잡혀 민주주의 장점을 스스로 단점으로 바꿔 버렸다"고 경고했다. 거대 야당이 독재자로 가는 길을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침몰할 것이라고도 했다.

언론을 통해서는 "무죄추정(無罪推定)의 원칙을 외면하지 말라"며 "이제 기소되지도 않은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단정 보도하는 것은 심각한 '언론 독재'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27조 ④와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에 근거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인데도 일부 보수 언론까지 기坦해 대통령을 좌언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내란죄는 공수처 관할이 아니므로 수사 자체가 반헌법적 폭거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고 했다.



했다. 만약 공수처가 이를 강행한다면 "역설적으로 형법 제87조가 규정하는 내란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민 여론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성난 민심을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그리스도인은 위기 때마다 광장에 모여 회개하고 기도해 왔다"며 1월 11일(토)부터 국회 앞에서 매주 '세이브코리아(SAVE KOREA) 국가기도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18일부터는 부산·대전·대구·인천·전주 등지에서도 기도회를 진행하며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무릎으로 기도하겠다"고 했다.

기자회견에는 세이브코리아준비위원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서울/경기/인천), (사)한국기독교단협의회 등 1,200개 단체가 함께했으며, 국회와 언론, 수사기관을 향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고 국민의사와 법치를 두려워하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들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는 윌리엄 블랙스톤의 명언을 언급하면서 " güven은 칼보다 강하다. 제4의 권력인 언론이 또 다른 독재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모든 그리스도인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동참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와 정의를 넘치게 하시길 간구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는 세이브코리아준비위원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서울/경기/인천), (사)한국기독교단협의회 등 1,200개 단체가 함께했으며, 국회와 언론, 수사기관을 향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고 국민의사와 법치를 두려워하라"고 재차 요청했다.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무료 전화상담 지원

한국상담학회, 유가족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유가족 및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전화 상담을 운영한다. 특히 소속 1급 전문상담사를 중심으로 심리상담 지원팀을 구성해 피해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들로써 심리적 외상을 호소하는 국민의 슬픔과 고통 회복을 위해서도 나섰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우울, 불안, 불면

등과 같은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은 누구든지 무료 심리상담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 신청은 국립없이 1533-7170이며, 무료 심리상담 기간은 다음달 4일(화)까지다.

한국상담학회 김장희 회장(경상국립대 교수)은 "학회에 소속된 최고 전문가인 1급 전문상담사 중심의 심리상담을 통해 재난 시에 유가족의 슬픔과 국민

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상담 전문 학술단체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상담학회는 시회공연위원회 최아론 위원장(우석대학교교과 신학·지역학회인 광주전남상담학회 김미례 회장(호남대학교)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무안공항 현장에서 머물며 희생자 유가족들의 슬픔을 함께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 "나라 어려운 이 때, 무엇보다 필요한 건 회개와 기도"

한장총, 1월 1일~3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금식기도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권순웅 목사, 이하 한장총)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금식기도회'를 2025년을 시작한 가운데, 전 교회적으로 지속해서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다.

한장총은 주대산교회(담임 권순웅 목사)와 함께 지난 1월 1일(수) 0시 송구영신예배를 시작으로 3일 까지 9차례 금식기도회를 가지면서 나라와 민족,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

'정치인정': 비른 정치 지도자 세움,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실현

'경제위기극복': 반도체 등 산업발전 시장경제의 발전

'빈부격차 사회적 갈등 극복': 사회적 약자 배려와 동반성장

'동성애 차별금지법 및 반 사회적, 교회적 악법 제정 반대'

'복음적 평화통일 북한 핵 위협 극복, 우크라이나 전쟁종식 등 세계적 평화'

'저출산극복 디딤새대 반성, 가정의 회복'

'한국교회 부흥, 한국성도교회 부흥'

한장총 대표회장 권순웅 목사는 금식기도회에 앞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같은 기도제목으로 금식기도회를 했으며, 1월 1일부터 3일까지 실종축복금식기도회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다.

권순웅 목사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때에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회개와 간절한 기도라고 여겨 특별히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한장총과 함께 실종축복금식기도회를 갖게 됐다"고 했다.



## '제7회 문학상 대상', 본상 수상 및 2024년 신인상 등단식

'하나로 서기 위해' 문학이 그 역할 감당해야...

했다.

한국교회의 대표 문학인으로 손꼽히는 박영률 목사는 하나로 선사상과 문학이 갈수록 활동방법이 줄어드는 문학인들을 위한 담론의 정이 되길 희망하며,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들을 위한 작품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했다.

작가회 대표회장 정지홍 시인은 인사말을 통해 "보고 싶었던 분들, 본인 작가분들이 반갑다. 이 행사는 열리기까지 사명으로 한신하신 박영률 박사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학상 김봉근 박사(주간)의 심사평, 문학상 대상 수상자 류본부문 윤준식 교수와 본상 시부문 이옥규 시인, 2024년 신인상 등단자로는 시부문 고석형 목사, 수필부문 신미호, 수필부문 김희수, 시부문 석보현, 수필부문 남택률 목사, 시부문 이연숙 님 등이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날 '하나로 선사상과 문학' 발행 편집인 박영률 목사는 인사말에서 "작가는 작품으로 평가한다. '하나로 선'이란 것은 하나로 우뚝 선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치와 사회가 논쟁에서 벗어나 하나로 서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다. 정지홍 회장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2부 축하순서로는 김영선 나눔뮤지엄의 죽주, 세계문화원 원장은 박시온 박사의 축사, 작가회 상임회장 김명자 시인의 축사, 김종성 원로목사의 격려사, 낭송가 이현주시인의 축시낭송 순으로 마무리되었다.



## 세기총, 이주민 가족 초청 '행복한 나들이' 가져

시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기현 장로,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 세기총)는 지난해 12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강원도 속초에서 '이주민 가족 초청 행복한 나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주민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국,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등 4개 국가에서 온 이주민 부부와 자녀 70여 명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첫날 강원도 고성 소재 통일전망대에서 통일의 의미를 되새긴 참석자들은 강원도 속초의 현대 수리조트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승현 목사(세기총 공동회장)의 사회로 드린 예배는 준비위원회 이재희 목사(대한민국이주민희망봉사단 단장)가 환영사를 전하고 세기총 상임회장 김태성 목사(대한민국이주민희망봉사단 부단장)가 기도했으며, 심평종 목사(세기총 제9대 대표회장)가 '예수의 미음(별 2:5)'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심 목사는 "이주지로 생활하면서 정말로 예수 믿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봉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주자로서의 울바른 삶"이라고 강조하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봉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예수의 미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한다"라고 설교했다.

이어 진행위원장 박광칠 목사(세기총 공동회장)가 이주민 가정을 소개한 뒤 신광수 목사(세기총 사무총장)의 광고가 있었으며 세기총 브리질 지회장 한도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번 행사는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이주민희망봉사단 단장 이재희 목사, 부단장 김태성 목사, 진행위원장 박광칠 목사, 공동회장 이승현 목사가 후원을 했으며, 대외협력위원장 오승환 장로, 후원회원 정학영 장로(영광기업 대표)가 선물을 기증하는 등 다양한 협력으로 진행됐다.



## 의성고, 월드비전 '기후정의 옹호 프로젝트'

아동권리대표단과 함께 의성군 폭염 대응 위한 정책 제언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이 아동권리대표단, 의성고등학교 학생들과 '기후정의 옹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지난해 12월 26일 밝혔다.

'기후정의 옹호 프로젝트'는 2023년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이 전국 1038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후변화가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조사 결과, 대한민국 아동들이 기후위기 문제와 관련해 가장 우려되고 시급하다고 응답한 항목은 '폭염'과 '기후위기' 특히 취약한 집단과 지역에 대한 보호'였다. 이에 아동권리대표단은 '기후위기는 아동 권리의 위기'라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의 불평등한 영향을 줄이고 모두가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해 아동 주도 옹호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은 이번 프로젝트의 골자인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을 피하기 위해 지역별 기후재난 취약성에 대한 문헌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경상북도 의성군이 경북 기초 지자체 중에서도 폭염의 강도 및 빈도가 높고 폭염에 취약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점, 아동 인구 비율이 낮아 기후위기 정책 형성 과정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점을 근거로 기후위기 취약지역으로 선정됐다.

이후 올해 7월 의성군 주민의 폭염 관련 인식 및 경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를 통해, 주민 126명 대상 설문조사 및 아동, 노인 12명 대상 심층면담을 수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의성고 교직과 학생들과 '경상북도 의성군 폭염 실태 분석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문'을 발간했다. 특히 심층면담에서 수집된 폭염에 취약한 아동 및 노인의 생활 목소리를 기반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 이색 장기기증 캠페인 '나인퍼레이드'

한겨울 몸짱 산타들이 전한 크리스마스의 기적

한파를뚫고 장기기증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특별한 산티들이 거리로 나섰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이하 본부)는 국립장기조직혈액판리원의 지원으로 지난해 12월 20일 명동과 21일 남산에서 각각 '나인퍼레이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명을 구하는 나인퍼레이드, 올해 10주년 맞아

'나사시 장기기증으로 생명을 구한다'는 의미를 담은 '나인퍼레이드'는 장기기증인의 숭고한 나눔을 기리고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열리고 있다.

올해로 진행 10회를 맞은 나인퍼레이드는 20일 스포츠 트레이너 및 본부 홍보대사 등 20여 명이 참여하는 명동 퍼레이드를 성황리에 마치고, 21일에는 VMI한국시각장애인미라톤회가 동참하는 남산 퍼레이드를 양일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 의성 구세군 노매실교회

의성 구세군 노매실교회는 가족세트전도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가 되었고 도전을 받았다고 한다.

최미숙 사관은 저녁 때 간호사로 있으면서 응급구조사 119로 근무하던 중 직장을 끊기면서 첫날 새벽기도를 근무했던 병원 옆 순복음교회에 참석했는데 마침 그때 김호영 사관의 은혜가 넘치는 특송에 감동되어 1년 교제 후 결혼하게 되었다. 찬양에 감동되어 남편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구세군신학대학원에 부부가 입문했다. 남편은 순복음신학을 하고 은행에 청원경찰로 근무하다가 아내(최미숙)로 맞이하게 되었다. 최미숙 사관은 육적인 119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119 응급 구조자이다. 처음에

는 1년 정도 기도원사역을 하다가 두 번째는 김호영 구세군교회, 세 번째는 의성노매실교회에서 5년째 헌신하고 있다.

이 지역은 노인밀도가 높은 지역이라서 두 사람은 이 지역의 노인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곳을 긁을 줄 아는 섬김과 노고의 헌신을 하고 있다.

보청기를 달아드리고 영양제를 주시하고, 여러 가지 건강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센스 있는 사역자들이다.

특히 미늘이 많이 나는 농촌에 일거리로 도와주고 칼을 많이 쓰는 농촌 노인들에게 침침마다 칼을 길이주는 등 최대한의 시골목회, 노인들 목회를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한다. 사역자의 소원은 저음과 끝이 영혼구원이다.

노매실교회는 113주년 되는 교회다. 6.25 때 노영수 사관이 순교한 흔적이 있는 교회다. 모두가 피난 갈 때 끝까지 성전에 남아 있는 분들과 교회를 지키겠노라고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한 교회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는 매달 노매실교회 부근의 회관을 다니면서 영접기도를 통해 많은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가족세트전도 총괄 사무총장 이수 교수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소개하러 왔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총신대와 업무협약

생명나눔 문화확산 청년 세대 생명나눔 실천 모범사례

(제)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는 지난해 12월 12일(목) 총신대학교와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양 기관은 장기기증의 가치를 캠퍼스 및 지역사회로 확산하여 인식개선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총신대학교는 이번 협약체결에 앞서 지난해 11월 5일부터 3일간 '생명나눔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행사에서 학생 155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으며, 이는 전체 재학생의 약 11%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장기기증 세약의 적극적인 참여로 청년 세대 생명나눔 실천의 모범 사례가 된 총신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에 필요한 인력 지원과 교류, 교직원과 학생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 협력, 교내 생명나눔 캠페인 진행을 위한 장소 제공 등 다각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김민선 지역사회봉사센터장은 "이번 협약이 장기



기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가 되고, 생명나눔의 숭고한 가치를 나누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총신대학교는 성경적 세계관을 기초로 설립된 기독교 지도자 양성 기관으로, 개혁신학과 개혁신앙, 그리고 개혁실천을 바탕으로 기독교 인재를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 아가방앤컴퍼니 15억 원 상당 유아동의류 기부

지파운데이션 기부물품 미혼한부모 등 취약계층 위해 사용

국제개발협력NGO 지파운데이션(대표 박충관)은 아가방앤컴퍼니(대표 신상자)가 취약계층을 위해 15억 원 상당의 유아동의류를 기부했다고 최근 밝혔다.

아가방앤컴퍼니의 기부 물품은 총 15억 원 상당의 아가방, 애프와 유아동의류와 퓨토 유아동 용품 36,000여 개이다. 기부 물품은 미혼한부모 가정, 취약계층 가정 등 필요한 유아동에게 직접 지원될 예정이며, 일부는 나눔기계를 통해 판매되어 수익금은 저소



득 아동청소년 미혼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등 국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이번 기부를 기획한 아가방앤컴퍼니 전략마케팅 김광문 팀장은 "아가방앤컴퍼니는 아이들의 미래가 밝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기부를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며, "아가방앤컴퍼니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사랑받고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 천년초의 효능

#### 1)페놀성물질

-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약)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

####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암,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에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한국보건)

#### 3)탁시풀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세포 퇴행성 관절염)

(전북대연구논문)

####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 6)칼슘 : 흥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염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험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일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있음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연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 용기란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지금은 고인이 되었으나 후인으로서 나이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역임했으며,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낸슨 만델라는 세계인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27년이라는 긴 세월을 어울리며 감옥에서 보낸 경력이 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날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였다”고 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용감한 자는 두려움 없는 자가 아닌 두려움을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상당 칼럼니스트인 앤 랜더스(Ann Landers)는 온갖 문제를 기진 사람들로부터 한 달에 1만여 통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받은 많은 편지의 내용을 이루르는 가장 큰 주제는 바로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종격투기 선수 아델라야네코 헤도르는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라는 별명을 가진 이종 격투기 세계 최강자로 군림하는 선수였습니다. 어느 기자가 헤도르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세상에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헤도르는 말하기를 “다른 두려움은 없는데, 혹시 기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두려움은 질병보다 더 많이 죽고자’는 말이 좋아 보입니다. 감인한의 상장인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니 놀랍습니다. 두려움은 자신감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두려움의 가장 큰 해악은 무엇보다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입니다. 디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심하 22:30)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분명한 무기임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해질 때 두려움은 극복됩니다.

넬슨 만델라가 감옥 생활 27년 만에 석방되었을 때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서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두려움도 이겨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리요”(시 56:11)

##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 시린 세월의 위로자

가는 평온과  
흘러가버린 세월의  
시린 손목과 시린 발목  
웃으로 머플러로  
덮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뻥뚫린 시린 가슴은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덮여지지 아니하네.  
시린 가슴 아픈 마음  
다독이고 위로할 이  
사람을 만든 이 외에  
누가 할 수 있을까?  
때를 따라 일하는 분  
바람 부는 시린 가슴에  
사랑으로 찾아와 마음 덮으면  
핏값으로 찾은 생명  
온기찾은 마음되어 살아가리라.

30대에 혼자 된 친구의 가슴이 사라지는 고백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친구를 위해  
기도하다 이 글을 쓴다.

## 사설

##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나라가 되기를

2025년 새해가 밝았다. 모든 것이 새롭고, 또 새로운 지도로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야겠다. 역사의 새롭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행동이 달리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루리 국한 계율이라도 따스한 불날이 되면, 모든 것이 사르르 녹아내리듯이,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강물이 철철 흘러넘치기를 바란다.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상처 많은 사람들의 아픔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바란다. 어울리다며 분노하는 마음들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달아서 그들을 이루어 ngàn 가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세상에서 원수를 지고는 살 수가 없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씨를 뿌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원한의 마음들이 풀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능력과 소망은 한국교회를 통하여 세상 기운데 더욱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 돌처럼 굳은 손미디들이 부드러워지고, 굴곡 많은 세상, 막하고 묶이고, 미워서 흘기는 눈들에도 온정이 흐르기를 바란다.

모든 곁에 세력, 그걸 것을 불잡고 버린 것이라고 우리는 사람들을, 잘못 가는 길을 따라오라는 사람들,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는 강한 육십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면 외나무다리 위에서 있는 사람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흘죽히 내려지기를 바란다.

온 나라,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나라가 되기 바란다.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수십 갈래로 갈라지고 쪼개져 분열된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가 되기를 바란다.

2025년,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지 140년이 되는 해,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 건국 77주년이 되는 해, 우리 민족은 복음을 받고 광복을 이루어 자유를 얻었으며, 자유 민주주의를 키우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나라,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단연 언론들이다. 한국의 언론들은 오직 야당의 주장처럼, ‘탄핵’에 몰빵하고 있다. 여기에는 소위 보수언론들도 빼지 않고 있다. 아직 학제적 판결도 나오지 않은 대통령을 ‘내란죄’라고 규정하고 있고, 심지어 ‘외란죄’까지 물고 가는 언론도 있다.

더 이상 이런 혼란은 끝내야 한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아주 정치를 하면서도 이를 멈출 줄 모르는 정치권과 그들 편에 있는 언론들과, 그리고 일부 동조하는 국민들의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

특히 성령의 사람인 기독교인들은 학연, 지연, 혈연, 정치적 성향에 관계 없이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무엇이 합당한지를 슬기롭게 판단하고,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워야한다

대통령은 헌법기관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는 제66조부터 제85조까지 무려 20개조에 이르는 대통령에 관한 것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비상계엄’에 관한 것도 대통령의 통치 수단으로 규정한다. 이를 판단하는 것은 국민들이 투표로 뽑은 국가 통치와 운영을 위임한 대통령의 결정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도 ‘내란음모’라는 프레임을 짜놓고 선동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 정도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인가? 이에 대하여 지식인 원로 한 분은 야당의 정치에 대하여 “증오의 정치를 넘어 야수(野獸)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慨叹하고 있다. 오직 야당은 내부 지도자의 범죄적 과오를 방어하기 위하여, 방탄도 미だ하지 않았고, 국회의원들은 ‘호위무사’도 서슴지 않았다. 이미 해외에서는 그를 ‘좌파 선동가’ ‘사법 리스크가 큰 사람’ 한·미 공조를 펼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국회에서는 군과 경찰 관계자들을 불러, 우리나라 주적(生敵)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심문에 가까운 질문을 통하여 날날이 공개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단연 언론들이다. 한국의 언론들은 오직 야당의 주장처럼, ‘탄핵’에 몰빵하고 있다. 여기에는 소위 보수언론들도 빼지 않고 있다. 아직 학제적 판결도 나오지 않은 대통령을 ‘내란죄’라고 규정하고 있고, 심지어 ‘외란죄’까지 물고 가는 언론도 있다.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 배성한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2025 전국 청년 동계 연합 수련회



2024 전국 청년 동계 연합 수련회 기념촬영 광경

- 일시 : 2025년 2월 28일(금)-3월 1일(토) 1박 2일
- 장소 :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 수양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 등록비 : 1인 3만원
- 대상 : 교단 산하 청년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청년국

국장 오세준 목사 010-5041-3411  
총무 배윤호 목사 010-7331-4565